

「한국관광학회 고문 회고록」:

나의 '觀光餘錄 後記'

孫 海 植

한국관광학회 제 15대 회장

Sohn, Hai-Sik

I. 관광경영학 교수 40년

1970년 동아대학교에서 시작한 나의 관광경영학 전공 교수생활이 2006년 停年과 함께 다시 名譽教授로 연장되어 올해로 40년째를 맞는다. 나의 생애를 다 바친 세월이었고 대학과 학회활동의 연속이었으나 선·후학들에게 내 놓을 만한 업적이 없다보니 마냥 悚懼할 따름이다. 다만 2006년 2월 말에 나의 停年 記念으로 제자들이 출판해준 '관광여록(觀光餘錄)'에 신지 못했던 '나머지 기록'이랄까 기억의 片鱗들을 간추려 '관광여록 후기'로 남길 수 있어 다행으로 여긴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에 관광관련 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곳은 2년제 초급대학과 4년제 대학을 합쳐 10여 곳에 불과했다. 동아대학교의 경우 전국 有數의 리조트호텔인 해운대의 극동호텔과 극동여행사를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경영하고 있어서 현장실습 시설여건이 좋아 초급대학에 관광과와 관광실무과, 관광민속공예과를, 그리고 학부과정에 관광경영학과(주야간)를 함께 개설하고 있었다. 10여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한데다 호텔여행사 CEO를 강사로 모셔 영남지역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졸업생들의 취업은 거의 100퍼센트였고, 4학년 초에는 입도선매식으로 현장실습을 마친 관광호텔이나 항공사, 여행사, 관광협회 등에 취업이 보장되었고, 관광공사에도 해마다 선발이 되던 시절이어서 관광관련 학과의 교수직에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회고컨대,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를 겨우 달성할 무렵이었고 國民觀光의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인바운드 투어리즘을 정부주도로 추진하던 시절이었다. 관광의 기본시스템으로서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국제공항과 부두, 철도와 도

로, 상하수도과 전기통신, 각종 교통시설의 미비에다가 슈퍼스트럭처로서 호텔과 식당, 위락시설과 쇼핑시설, 그리고 관광자원의 미개척 상태에서 무모하게 관광사업을 추진하느라 관광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관광법규의 제정과 함께 관광행정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구미제국에서처럼 사회적인 觀光現象이 자연스레 발생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사업을 진흥시킬 관광정책을 수립해 온 과정과는 반대로 관광현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국제관광을 정책적으로 강행한 꼴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관광사업 현장에는 유자격 종사자를 의무 고용토록 함으로써 구인난에 허덕였고 관광종사자를 양성·공급해야 할 관광교육 현장에는 교수요원의 부족은 물론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보하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교육교재의 부재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焦眉의 관심사였다. 당시 관광교재로 입수 가능하였던 교재를 例擧해 보면, 먼저 1963년도에 경기대 관광경영학과를 창설하고 초대 학과장을 역임한 김영실교수께서 편찬한 국내 최초의 관광교재인 『관광사업론』(1966년 판)이 고작이었고, 일어교재의 번역본인 『현대관광론』(1974:유비각), 영어교재인 D. E. Lundberg의 “The Tourist Business”(1972:시카고) 그리고 R. W. McIntosh의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 Philosophies”(1970:그리드)를 대형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였다.

II. 일본지역 관광학술시찰 유감

1972년 8월 한 달 간, 나는 학과개설 때부터 뜻을 같이 해온 동료 한연수교수와 함께 당시 교육부와 한국관광협회가 주관한 동남아 관광학술 시찰단 11명에 선정되는 행운을 얻었다. 5~6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일본지역과 홍콩지역을 각 2주간씩 번갈아 시찰하는 관광 일정이었다. 나와 한연수 교수, 경기대의 김진섭 교수, 김용원 교수 그리고 교육부의 한태수 대학행정과장은 먼저 일본 시찰단에 편성되었고, 수도여사대(세종대)의 박승애, 주정자 교수 등은 홍콩 시찰단에 편성되었으나 두 시찰단 모두 교차 시찰을 포기하고 일본과 홍콩에서 4주간을 체류하며 각기 관광교육기관과 관광행정부서, 관광사업체, 관광협회 등을 두루 시찰 또는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문제는 일본팀에서 벌어졌다. 관광학술시찰 출발 한 달 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관광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진섭 교수와 같은 대학의 김용

원 교수가 개인적 견해 차이였는지는 모르나 두 분은 서로 대화를 단절한 채 김진섭교수는 일본 도착 이튿날부터 우리 시찰단 일행과는 접촉을 끊은 채 개별행동을 하였고, 귀국 시에도 따로 입국을 해버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용원 교수는 동경의 지인을 만나 우리들의 시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한과 여성 지도자요 일본 중의원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일.한친선회 리더인 고마쓰여사는 우리가 투숙했던 뉴오타니호텔, 게이오프라자호텔, 데이코쿠호텔, 아카사카와 긴자, 녹본기 일대, 국회의사당과 메이지궁 등을 자상하게 안내하면서 고급레스토랑(문세르통통)에도 초대하였다. 나는 동경에 사는 처형(안병원:호텔 및 골프회사 사장)의 초청으로 우리 일행과 함께 데이코쿠호텔 중국관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에 뒤질세라 한연수 교수도 후쿠이(福井)시에 거주하는 외삼촌의 초청으로 장거리 여행과 식사대접을 받게 하였다.

당시 일본 사회는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의 포스트이펙트로 고속전철 신간선의 운항을 비롯, 게이오 프라자 등 대형 호텔과 백화점이 즐비하고, 모든 건물에는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으며, 도쿄부의 지하철은 4통 8달 그대로였다. 일행은 도쿄의 릿쿄대학에서 학과장 마에다 이사무 교수를 만나 1960년에 창립된 일본 관광학회와 경과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며 도쿄역 건너편에 위치한 일본관광협회와 국제진흥회도 방문하여 관광분야 출판물과 각종 보고서를 구입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한교수와 나는 신간선을 타고 신오사카까지 기차여행을 해보기도 하고 일본 최대의 관광휴양지, 아따미 해변과 후지산록의 하코네 호수, 스카이웨이 드라마 이브를 체험하기도 하였다.

한 달 가량의 일본 체류였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2학기 개강 걱정을 하며 8월 30일에 귀국하였으나 늘 김진섭교수 생각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김용원 교수께서 김진섭교수의 한국관광학회 회장체제를 거부하고 ‘한국관광이사회’를 발족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학회기능이 정지된 지 3년 만인 1975년 10월, 경기대의 박용호 교수께서 학회를 다시 추스려 회장직에 오르게 되었고 나는 부회장을 맡아 해운대 극동호텔에서 정기총회 개최준비와 『관광학』 제2호를 부산(태화출판사)에서 발간하도록 적극 도와드렸다.

Ⅲ. 학회 창립 배경과 성과

이미 김사현(본 학회 제13대 회장) 교수께서 『관광학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42호)에 “한국관광학연구 30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란 제하의 기고에서 韓國觀光學會의 創立에 따른 경과를 史實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기술한 바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먼저 한국관광학회가 서울에서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소속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학회설립을 발기하고 창립을 보게 된 것은 그만큼 연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70년대 초, 서울지역에는 관광교육기관으로 경기대, 수도여사대(세종대), 경희초급대, 승의여전, 홍익공전, 한양여전 등이 개설되어 있어 전국 10여개 관광관련대학의 절반을 점유하는 꼴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전국 최초로 관광학과를 설립하여 전임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경기대에서 한국관광학회 창설의 주역을 담당한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다. 더욱이 경기대의 김영실 교수께서는 1943년 일본청산학원대학 영어과를 졸업한 바 있었고, 김진섭 교수 역시 일본 일교(히토즈바시) 대학 법학부와 동 대학원을 수료한 일본통들이었다.

나는 1972년 8월, 일본관광학술시찰 도중에 도쿄의 리쿄대학 관광학부 마에다 이사무 교수를 접견하였을 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는 1960년 5월 11일에 일본관광학회가 상지대학 요케노 노부이치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창립되었다는 사실과 경기대학의 관광학과와 교수들 동정, 그리고 한국관광학회의 창설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관광학회의 학회지점 소식지인 ‘연구보고’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참고로 우리보다 12년 먼저 창설된 일본관광학회의 창립에 따른 경과와 설립취지를 일본관광학회 연구보고 제14호(1984년 11월 1일)의 요케노 노부이치 교수(회장 역임)의 “일본관광학회의 창생기”에서 요약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1959년 5월 25일 칸사이 지역의 카와무라 교수와 규슈지역의 다나카 기이치 교수가 도쿄의 상지대 요케노 노부이치 교수의 연구실을 예방하여, 일본관광학회 창립에 대해 건의하였으나 자격기준에 합당한 창립회원 80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과 등록관청의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5개월 여유를 두고 구미제국의 사례를 연구한 끝에 같은 해 11월 가칭 일본관광학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칙초안의 심의와 학회명칭의 결정을 본 뒤, 1960년 5월 11일 도쿄 상지대학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학회창립취지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년에 일본의 관광사업이 발전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며 관광사업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론적, 실제적인 문제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종래까지 이러한 문제는 실무자들이 그때 그때 처리해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책이 필요시되고 있다. 지

금까지 일본에서는 관광사업의 학문적인 관심을 갖는 이가 많았으나 조직적인 연구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일찍이 관광사업이 발전했던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관광학이라는 독자적인 과학 분야가 확립되어 있었고, 또한 다수의 국가에 관광학회가 설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관광학회는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국제관광전문가회의라는 조직 하에 연구의 협동화를 꾀하고 있다. 이 산업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은 일본에도 관광학회를 설립하고자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으며 여기에 여러분들의 찬동을 얻어 학회를 설립하고자 한다.”

‘일본관광학회설립 준비위원회 대표: 카와무라 요스케(河村宜介), 다나카 기이치(田中喜一), 미와세 이찌로(三輪清一郎), 요케노 노부이치(除野信道)’

우리나라의 관광학회가 수도 서울의 경기대 중심으로 창립되었듯이 일본의 경우도 원로교수들이 포진해 있던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상지대학(요케노 노부이치 교수)과 조도전 대학(미와세 이찌로 교수)이 주도하여 일본관광학회를 창립하였고 초대회장에는 조도전대의 미와세 이찌로 교수가 추대되었던 것이다.

IV. 유사학회 난립 속, 국제화는 지체

김사헌 교수의 전계논문에서도 제기되었듯이 한국관광학회가 80, 90년대를 통하여 유사학회의 난립을 초래한 것은 무엇보다 학회 출범 당시부터 학회의 회칙에 미비점이 많았던 데 기인하고 있다. 회칙 중 제2조(목적)에 “관광학 관련 학술분야의 연구조사 발표와 보급 및 이를 탐구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회원 간 친목을 내세워 전국적인 회원분포라는 요건만 갖추면 새로운 명칭의 학회창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다. 또한 회칙 제4조(연구실)에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부를 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지부의 설립이 어렵게 제한을 두고 있었다. 당시 전국 규모의 학회들이 각 지역에 지회(지부)를 두고 있었으나 유독 한국관광학회만은 창설 30년 동안 서울 고집을 버리지 않았고, 따라서 유사학회의 난립을 촉진하는 빌미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경남지역의 경우 1984년 8월 이 지역의 관광분야 대학교수, 산업체 간부 20여명이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관덕회(觀德會)를 조직하여 5년간 학회형식으로 운영하다 부산경남관광학회로 발전하였으며, 1989년에 58

명의 정회원이 모여 한국관광레저학회라는 전국 규모의 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한관광경영학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사학회는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사학회의 난립 속에 같은 대학의 교수 간에도 가입 학회별로 분과작용이 야기되기 일쑤였고 학회별로 회원 늘리기에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학회의 회장 피선거에 대한 자격기준도 명시되지 않아서 전임강사가 회장에 선출되는 사례도 생겨났다. 회장 선거일이 되면 50명, 100명씩 낮은 회원들이 총회장에 등장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나의 경우 1986년도 회장선거에 나섰으나 갑자기 불어난 신입회원들의 등장으로 서울지역 후보에 밀려 낙선했던 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부회장 여섯 번을 지낸 다음 2000년대에 들어서 겨우 회장직을 얻을 수가 있었다. 나는 회장선출을 위한 추천 위원회와 회장 취임식에서 재임 중 신규학회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었다. 2000년 12월에 한국관광학회 내에 觀光資源開發分科學會를 설치하여 매년 관광학연구 4권 외에 분과학회지 관광자원개발 특집호를 증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러 학회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관광학연구분야의 국제화 요구에 부응하여 최초로 한일 간의 관광학회 공동연구발표회를 시도한 안중운 제5~6대 회장의 공로를 빠트릴 수가 없다. 1983년 8월 28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제1회 “한일관광학회 공동연구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다음 해 1984년 1월 21~22일 일본 도쿄의 릿쿄 대학에서 제2회 “일한관광학회 공동연구발표회”를 또한 성황리에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 25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한·유럽지역 국제관광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관광학회사에 연구영역은 물론 학술교류의 국제화를 실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는 1983년 1월 안중운 전회장 재임시 부회장의 위치에서 동계학회를 부산에서 두 번째로 해운대 극동호텔에서 개최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을 드린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V. APTA와의 제휴

‘90년대 들면서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강조되면서 외국문헌에 게재된 논문이 높은 평점을 받게 되자 국내의 관광관련대학의 교수들이 외국의 영문학회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려는 시도가 역력하였으나 전문학회지가 제한된 데다 발표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나는 1995년 한국관광레저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 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APTA: Asia Pacific Tourism Association)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실에서 13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300여명의 관광분야 학자,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 APTA 창립 및 국제관광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추대되었다. APTA는 제2차 연차총회를 호주의 퀸즈랜드(제임스 쿡 대학 필립 피어스 교수 주관)에서 개최하고, 추가 회원국으로 인도네시아, 괌, 뉴질랜드, 호주 등을 가입시킨 이래 현재는 2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해마다 가입회원국을 순회하며 연차총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1998년 8월 18일부터 3일간 나는 APTA 제4차 총회 겸 학술발표대회를 한국의 충북 단양군에서 한국관광학회와 공동개최하기로 당시 김사헌 회장과 합의하여 실로 성대한 국제학술대회를 마칠 수가 있었다. 당시 이 행사를 협찬한 단양군에서는 이 대회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단양의 중심가에 기념공원을 건립하고, 국내외 참가자 전원의 명패를 동판으로 제작해 기념식수와 함께 보존하고 있다. 당시 이 대회에 참가했던 외국의 APTA 회원들은 해마다 만나면 단양대회를 잊지 못한다고 실토하고 있어 언젠가 다시 단양에서 APTA와 TOSOK이 공동으로 국제관광학술대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APTA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설 수 있도록 많은 교수들이 참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지난 일을 반추하다 보니 내 잘못된 일들은 깡그리 잊혀져 버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헌신하신 분들의 얼굴이 자꾸 앞을 가린다. 항상 학회활동의 경과와 예측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언을 해주신 우리 학회 '역사 지킴이' 김사헌 고문에게 먼저 감사드린다. 그의 제자이자 1982년 동아대 주최 전국 관광학도 학술토론회 최우수수상자인 한범수 교수께서 우리 학회의 신임회장에 취임한다니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덧붙여 나의 제자 조명환 교수께서 우리 학회 직전 회장을 역임하고 학회의 고문으로 일하게 되어서 더욱 감개가 무량하다. 나의 회장재임 시 학회의 홈페이지를 완성하는 한편으로, 『관광학연구』를 학진의 등재학술지로 평가받게 하는데 혁혁한 공적을 남기신 김성혁 전 편집위원장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함과 미숙함 그리고 덜 세련된 언행에도 부단히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학회 고문 여러분과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는 바이다.

우리 한국관광학회의 영원한 발전과 영광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